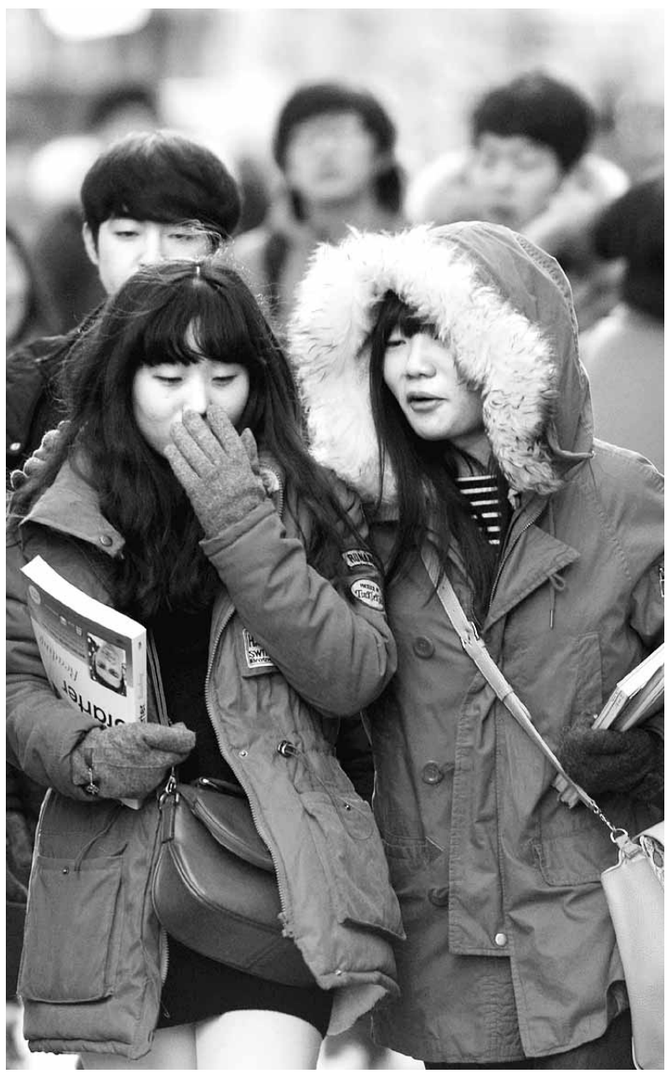

광주·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덜덜덜 "추워도 너~무 춥다"

수도계량기 동파 잇따르고 전력수요 급증세

거리 한산 인적 드물어 재래시장 등 매출 뚝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일 곡성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3도까지 떨어지는 등 광주·전남지역이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꽁꽁 얼어붙었다. 수도계량기 동파도 잇따랐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도 한산했다.

◇강추위에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잇따라=이날 광주·전남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얼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총 10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전남 지역은 지난 달 1일부터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모두 95건의 계량기 동파사고가 접수됐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지난해 같은기간 195건, 2011년 233건에 비해 줄었지만 최근 한파로 증가세다.

맹추위에 따른 난방기 가동으로 전력수요도 늘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지역 오전 10~11시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464만 8000㎾를 기록해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예비전력 400만㎾ 이상 500만㎾ 미만)단계가 발령됐다.

영광에서는 한파에 얼어버린 세척기를 녹이려다가 불이나기도 했다. 이 사고로 고압 세척기 2대와 창고가 불탔으며 업주 이모(33)씨가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거리 한산 상가 손님도 '뚝'=한파에 거리와 골목 곳곳이 얼음판이 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해 거리와 상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면서 소비자의 발걸음이 끊겨 재래시장이나 상가의 매출도 뚝 떨어졌다.

추운 날씨에 목 감기를 호소하고 얼어붙은 길을 걷다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에 '덜덜'=맹추위는 서민들에게 난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었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정 난방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나 농촌 경로당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도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난방비 만으로는 기름값을 충당할 수 없어 각자 회비를 추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기상청은 4일에도 한파가 이어져 광주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이 계속되겠다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반려견 키우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목포 등 전남 4개市

앞으로 목포·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지역민들은 관할 시청이 지정한 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3일 "'전남도 동

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 올해부터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의 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하면 반려견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돼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찾기가 쉬워진다. 방식은 개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장치(2만원), 외부 부착태그 (1만5000원), 인식표(1만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캐도 캐도… 영광원전 비리 끝이 없다

광주지검, 과장급 직원 또 체포… 10명 이상 사법처리 될 듯

위조 부품이 대거 납품된 영광원전 직원들의 '검은 뒷거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영광원전 직원이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유착 관계가 뿌리깊은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연루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영광원전 과장급 직원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납품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영광원전의 A과장(52)과 광주S사 대표(41)를 구속했다. 검증서 위조 사건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검찰은 영광원전 직원들이 납품과정에서 이를 묵인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검증서 위조와 관련 5명을 입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으며, 납품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1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K사 대표 이모(35)씨와 이 회사 과장 정모(36·불구속)씨는 최근 3년 6개월간 75차례에 걸쳐 321개 품목 7100개 부품이 납품되는 데 쓰인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구 K사 대표 고모(56)씨, 광주 W사 부장 박모(47)씨, 광주의 또 다른 W사 대표 이모(48)씨도 검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서 위조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원전 직원들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내 치고 달아난 남편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3일 도로를 횡단하던 자신의 부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9)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증심천 주변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부인 박모(46)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

법원,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명령

'나주 고종석' 약물치료 청구 예상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나주 7세 여아 성폭행범인 고종석(24)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물 치료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수형자가 본인 동의 하에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법원이 약물 치료를 강제한 판결은 이번이 최초다.

고종석의 경우 상습 아동 성폭행범인 표씨와 달리 첫 범행이었지만 최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은 정신감정에서도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오면서 광주지검은 약물치료를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석은 집 안에서 잠자던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4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 공판이 열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를 시작으로 모두 7명에 대해 법원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 금고털이 발설 고소사건 여직원 동거남 사망 보험금 경찰에 송금 '의문'

5년 전 금고털이 공범 의혹이 드러난 고소사건의 한쪽 당사자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동거남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유착의혹을 받고있는 한 경찰관에게 준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공단환경산업의 50억대 회삿돈 횡령의혹을 놓고 이 회사 김동휘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한 같은 회사 경리직원 P씨가 동거남의 사망보험금 절반인 1억원을 여수경찰서 박모 경위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P씨의 동거남 Y씨는 지난 2006년 9월 여수 신항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됐고 동거녀인 P씨는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 이 사실은 박 경위가 지난해 7월 불법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의 과외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박 경위의 계좌추적에 나서 박 경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원 안팎의 돈이 P씨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 경위는 Y씨 사망 8개월 뒤인 2007년 5월 한밤중에 P씨 아파트에서 P씨와 함께 있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파출소로 전보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P씨와 박 경위는 채무관계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라이벌 도장 현수막 훔친 태권도 관장

쌍나팔

○…같은 장소에 설치된 라이벌 도장의 현수막만을 골라 훔친 20대 태권도 관장이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박모(51)씨의 태권도장 홍보용 현수막 등 모두 38장의 현수막(시가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신모(29)씨를 불구속 입건.

○…박씨는 "20여 년간 같은 자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왔는데, 문을 연지 2년 밖에 안 된 신씨가 자신의 도장 현수막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게 괘씸하다"며 한마디.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2년 12월 3일(월) ~ 2013년 1월 11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1월 11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의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정서코칭"
STOP 학교폭력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1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1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2월 2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 제출서류: 입회원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 육 비: 28만원(자격검증비 별도: 정서코칭 2급 5만원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대학생, 목회자 부부 등록시 특별 장학혜택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시 교육비 5만원 할인혜택(단, 중복할인 불가)
■ 특 전: 3단계 교육 후 보수교육(4시간*4회) 이수시
아동가족심리상담사2급자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취득
※수강료, 자격검증비 별도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www.kwangshin.ac.kr
AYCE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여성가족부 지정 자격검수 전문기관
후원 | febc 광주극동방송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9-2 gj.febc.net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2013년 1월 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